

# 세세생생 보현행자의 길을 가리라 (하)

권혁위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도리도 아니었고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지만, 아내가 세상을 뜬지 1년도 못되어 나는 재혼을 결심했다. 직장 동료이면서 내가 힘들어 하는 과정을 지켜봐왔던 한 사람이 내게 자비심을 냈다.

예식은 원찰인 불광사 대웅전에서 치렀다. 주례는 광덕 큰스님께서 서 주시기로 했으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서 대신 한광 스님께서 맡아 주셨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 셋 딸린 홀아비에게 마음을 낸 지금의 아내는 나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관세음보살이다. 아울러 못한 나를 한번 만나보고 너그럽게 허락해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는 항상 죄송스럽고 감사드리시는 마음뿐이다.

결혼 후 지금의 아내는 아이들을 너무 잘 키웠고 나처럼 나의 건강도 좋아졌다. 그래서 부모님과 주변으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많이 받았다. 흔히들 불법 인연 만나기 어렵고 훌륭한 스승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들 하나, 나는 내 인생의 대불행을 반면하여 대행복을 만난 복 받은 자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두 가지를 모두 구족했으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광덕 큰스님을 찾아간 자리에서 들은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보살의 마음이 정말 가루하다. 세상의 여러 가지 공덕 중에서 남의 자식을 길러주는 공덕만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셨다. 어느 날 법회를 마치고 몇몇 도반들과 함께 큰스님을 찾아온 자리에서 내가 여쭙었다. 마하반야바라밀의 집 뜻을 좀더 쉽게 말씀해주시는 사하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정말 그러했다.

나는 더욱더 불교공부에 박차를 가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법회에서 '반야바라밀'

의 사자후를 터트리는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은 백백간두에서 허덕이던 내게는 감로수요. 묘약이었다. 인생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먼저 간 아내의 죽음으로 다시 이 어진 불교와의 인연을 두고 고맙다고 해야 할지, 새삼 묘한 인연법을 느끼게 된다.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사찰에서의 활동도 자연히 많아지게 됐다. 나는 불광사·불광법회에 나가면서 거사들도만 구성된 대원법회에 입회했다. 아내의 죽음으로 영혼에 비상이 걸린 나는 빠짐없는 법회참석과 조석일과 및 기도수행은 물론, 누군가 상을 당하면 법우들과 곧바로 상가(喪家)로 달려갔다. 영가축원기도 및 상례작법을 전담해서 봉사하는 연화부 활동에 매진했다. 그 영향인지 얼마 가지 않아서 선배 형님들의 강력한 추천으로 법등조직을 책임지는 간부로 위촉됐다. 그 후 오랫동안 법등 여러 도반들과 신행생활은 물론 사중의 대소사를 함께 했다.

1989년으로 기억되는 어느 날이었다. 사중에서 법회의 사회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몇 번의 고사 끝에 일을 맡게 됐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 인연으로 오늘 날까지 각종 법회나 중요 행사 때마다 대중 앞에 서고 있다.

사찰에서의 활동을 언급함에 있어 광덕 큰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다. 불광사·불광법회의 창건주인 광덕 큰스님께서는 한국 불교 도심포교의 선구자로서 여러 방식의 포교활동을 눈부시게 전개하신 분이시다.

1992년 초여름, 세계 불교음악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광명의 합창이 온 누리를 밝히는 일대 인연사이자 대자불사가 벌어진 날의 감격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600명이 넘는 선남자 선여인들의 코러스가 무대에 섰고 그 앞에 솔리스트 3인(거사·보살·스

님)과 소리중장단, 무용단, 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연출해 낸 것이다. 화엄경의 정요인 '보현행원품'을 광덕 큰스님께서 작시하시고, 한국음악의 거장 박범훈(현 중앙대 총장)님이 작곡·지휘한 국악교성곡 '보현행원송'이 세종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던 그 날의 그 감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뻐근하다. 그날 이후 여러모로 부족한 내가 교계의 공연무대에 남자 솔리스트로 지명되어 여러 공연 무대에 서게 되는 '영광의 인연'을 맺게 됐다.

법명 이야기도 내 신행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다. 86년 9월경 내가 재직하던 직장

계첩장을 받아 들고 정말 깜짝 놀랐다. 계첩장에는 분명 법명이 '정암'이라고 적혀 있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묘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오늘날도 스님께서 일러주시는 가르침, "우리 불자들 모두가 성불을 외칩니다만,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성불했던 완전자입니다. 부처를 다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참나를 찾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보현행원으로 보리를 다시 이를 따름이다"라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아로새긴다.

무명으로 덮였던 나를 확연히 바꾸어 준 것은 반야바라밀의 개인이라고 말할 수 있

## 안정된 가정생활 속 불교공부에 매진 봉사했던 양로원 이름이 내 법명 돼 거사모임 가입후 상례작법 봉사에 전념

의 여직원 모임에서 자선 일일차집을 운영했다. 나는 거기서 얻어진 수익금과 회사에서 결제해준 의료약품 및 보시금을 가지고 양로원에 위문방문을 가게 됐다. 송과 구 오공중에 있는 청암양로원이었다. 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회사를 대신해서 위문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의 무상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병들어 계신 노인들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돌아온 그날 받은 점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한 주일을 보냈고, 그 다음주에 우리 거사법등에서 아의 순례법회를 북한산 흥국사로 가게 됐다.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 동안 며칠 전 읽고 온 청암양로원 노인들의 건강수복을 발원하며 일심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난 뒤 다음달 초에 있는 불광계단 수계식에 동참해 의식을 치른 뒤

했다. 육바라밀, 팔정도의 구원도 반야바라밀을 바탕으로 하되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대상을 집할 때 내 것이나 네 것이나 소유적 경쟁개념에서, 너와 내가 공존한다는 존재적 동일개념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당부하신 것, 즉 이것과 저것 그리고 너와 내가 직물의 씨실과 날실처럼 짜여진 인연으로 얽혀 있다는 연기법을 깨닫게 됐다. 자기 안에 이미 부처가 있음을 깨달아 이는 것 또한 반야바라밀의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중생의 생명이 곧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생명임을 깨닫게 해 주신, 높게는 제불보살님 가깝게는 광덕 큰스님의 가르침에 둔소백배 합장예경 드리오입니다. 나무 마하반야바라밀.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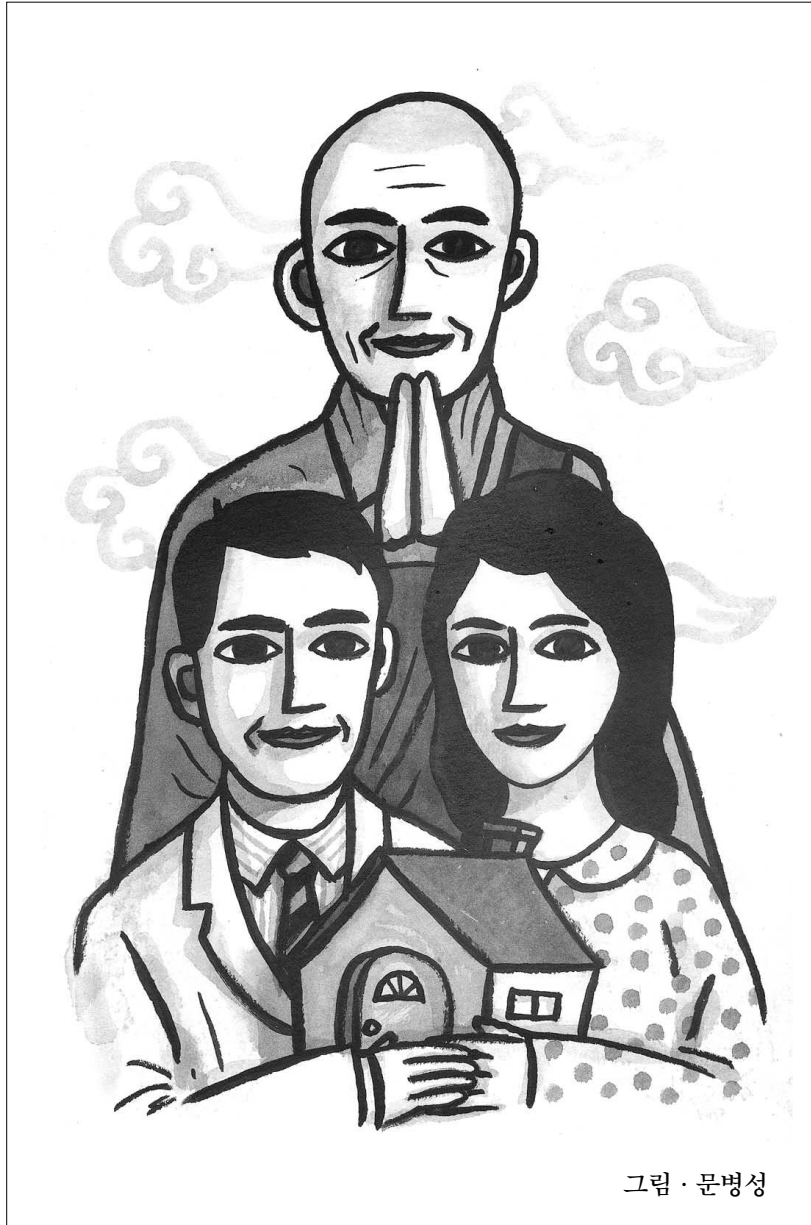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살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폭풍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시면 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한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51
- 인터넷 접수: snoopy@buddhapia.com

### 상쾌한속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배개볼 1인용 25,990원 → 45,000원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목걸이,팔찌: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당상승억제, 전신에기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신경 및 피가 맑아진,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들의 사용 후기적결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부서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시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25,990원 → 95,000원

###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운운)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원복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체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지정)

영산범음집 인문본 상용천도집, 범음범패집 키보드와 비디오를 가지고 계신 스님들과 불자들이들은 환영메탁이 있습니다.

☎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여금주 이만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 과일의 왕 두리안

스님들과 불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번 두리안을 대량 수입이게돼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뜻으로 두리안 가격을 인하여게 되었습니다.

● 두개 6.5KG이상 55,000 원  
한박스 13KG이상 100,000 원

## Sale!

후식으로 보이산차 장미차 국화차 중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상 www.durianshop.com

후레쉬 망고가 입고되었습니다.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011-474-1345  
입금구좌: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장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최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법부)

사원모집 (주)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본인 거주지 ● 문의: 050-5244-0108

### 시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시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영블,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250,000원

Yuko

◇ 소리공방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즈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희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